

국 외 출 장 계 획 서

출장명 : OECD 농업위원회 및 글로벌 포럼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1. 출장 목적

- 2012 OECD 농업위원회(159차 CoAg) 및 식량안보를 위한 개도국정책 공조방향 회의 참석
 - 회의참석(2012. 11. 26~28)
 - 정책과제(2012년 하반기 농업·농촌분야 OECD 연구동향 분석, 2012. 11-2013.3) 수행목적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기간: 2010. 11. 25(일)~11.30(금)(4박 6일)
- 출 장 자: 이대섭 연구위원
- 방문지역: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re

3. 일정표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11월 25일(일) 14:00	인천→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11월 26일(월)	OECD Conference Centre	Global Forum 회의참석	2박 2일
11월 27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CoAg 회의참석	3박 3일
11월 28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CoAg 회의참석	4박 4일
11월29일(목)~30일(금), 15:30	파리→인천	귀국	4박 6일

4. 주요 내용

□ 글로벌 농업포럼

I. 회의명 : OECD 2012년도 글로벌 농업포럼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11.26일, 9:00~18:00, OECD 본부 회의장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OECD 회원국 및 G20 국가, FAO, UNEP, IFAD, UNECA, 사무국 담당자 등 203명

※한국 : 농수산대학교 총장 배종하,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서정아 사무관, 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박사,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최정남 박사, 당 대표부 이안호 참사관

※의장 : Veli-Pekkar Talvela (필란드)

V. 핵심요지

- OECD는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타 국제기구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식량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2년 OECD 글로벌 농업포럼은 식량수급, 생산성 증가 등과 관련한 문제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주제로 채택하였음.
 - (종합) OECD 회원국의 정책들이 개도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spill-over effect), 어떤 형태의 농업투자가 개도국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효과가 있었는지 등이 소개되고 이와 관련 저개발국의 입장에서 어떤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소개되었음.
 - (정책적인측면) OECD회원국들은 저개발국의 식량수급,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위험관리 특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오연료정책의 여러 가지 면을 조명함.
 - (농업투자) 공여국의 정부, 민간투자 촉진 및 확대가 필요한데 특히 기반시설

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며 신용 및 금융 접근성을 증대시켜야 함. 또한 수혜국의 농민이 원하는 투자가 되어야함을 강조함.

VI. 토론 내용

1. 환영인사

-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OECD는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G20, FAO 등의 국제기구와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식량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 또한 개도국에서 식량안보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글로벌 농업포럼 의장 Veli-Pekkar Talvela(핀란드)는 농산물가격 급등, 가격변동성확대 등 OECD 회원국들이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 공조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무역제한, 보조금정책, 농업투자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글로벌 포럼을 통하여 회원국, 비회원국, NGO 등이 함께 모여 농업정책개혁, 식량안보 강화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통해 농업개발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함.

2. 제1주제 : OECD 국가 농업정책의 영향 - 이슈의 발견과 발굴

- 발표자 : Jonathan Brooks, OECD 무역농업 사무국 선임농업정책분석가
 - 2007년 이후 새로운 정책 이슈로 농산물수출제한, 바이오연료 정책, 농업투자 등의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
 - OECD국가에서 일반서비스추정치(GSSE)는 증가하고 PSE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식량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급증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함
 - 개도국들은 세계 식량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고 OECD 회원국들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개도국 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 (제1 토론자) Allan Mathews(더블린대학) : 식량안보문제는 국제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이 되고 있으며 2007년 곡물가격상승, 2012년 재상승을 계기로 바이오연료 생산, 식량가격시장혼란, 농산물 가격변동성, 추가적

인 농업투자, 소비문제, 생물다양성, 글로벌 식량안보 거버넌스 등의 이슈를 만들어냄. 소비정책, 용수, 기술, 투자, 생산 등 다면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 회원국들의 정책일관성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제2 토론자) Christopher Delago(세계은행 농업농촌 정책제언가) : 세계식량시장에서 저개발국의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식량가격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바이오연료생산에 있어 브라질이 에탄올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사탕수수는 식량안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관련이 있는 대상이며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을 지적함.
- 사무국의 발표와 2명의 토론자 발언 이후 각국의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일본 :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접근방법이 문제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일관성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연구를 제안함.
 - 브라질 : 브라질은 바이오연료생산에 있어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브라질을 사례로 무역에 관한 국제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임. 브라질은 이미 1930년대부터 에탄올을 생산하여 생산량 10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가격과는 무관함을 강조함.
 - 프랑스 : 유럽은 글로벌 합의에 따라 개도국과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수출보조금 등을 감축하였으며 식량의 안정성 및 농산물 가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또한 유럽은 식량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정책을 5%의 혼합으로 제한하고 있음.
 - 미국 : 바이오연료정책은 미국도 책임을 느끼며 생산을 감소 중임. 가격 변동성 문제는 정보공유가 우선 중요하고 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경(border)과 관련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나 : 1980년대 활발했던 민간 투자가 감소하여 현재는 20년 전 상황과 유사함. 저개발국의 식량 안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보조금 감축이 직접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캐나다 : 위험관리의 중요성, 가격 변동성 확대는 식량안보 약화의 증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도출되어야 함.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국내보조금 감축 정책을 지지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시장구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중국 : 중국은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의 수입품목인 옥수수과 대두 시장에서의 미국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곡물시장의 가격 변동성, 공급망의 안정성, 시장예측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명함. 정책일관성과 관련하여 저개발국 지원을 위해 FAO와 논의 중이며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됨.

- 그 외 콜롬비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EU, 이태리 등의 참석자들이 위험관리 특히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정책일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의 Jonathan Brooks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져 있으나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정책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3. 제2주제 : 농업투자

- 발표자 : Jakob Skoet, FAO 경제사회개발국 경제학자
 - 농업투자는 정부투자, 공공투자, ODA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생산지 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선진국에서는 일인당 농업생산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자 일인당 농업자본 축적은 상위 10개국과 비교하여 하위 10개국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의 사례에서 농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구개발’이었고 빈곤 감소측면에서는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농업투자는 빈곤감소 및 기아자를 감소시키고 농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토론자는 Morgane Danielou (BIAC 식품농업위원회 부의장)와 Robert Calson (세계농민연합회장, World Famers’ Organization)으로 국제기구에서 농업투자를 위한 공조가 식량안보 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베트남, 콜롬비아 대표가 자국의 농업정책 및 투자 현황에 대하여 소개함
 - 베트남 : 자국의 생산성 제고 정책, 특히 종자개발, 보급을 통해 수확량을 증가시켜 지난 20년간 미국생산량은 2배로 증가하였으나 탄소배출

- 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국가개발 정책에 따라 생산기반시설 구축에 투자하여 농업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며 바이오연료 생산원료로 중국과 베트남은 카사바를 생산 중임.
- 콜롬비아 :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둠. 환경 및 농업정책의 조화 방안, 식량안보 관련 농산업 활성화 정책, 기술개발과 보급 체계화, 농산물의 품질 제고, 위험관리 방안 수립, 신용접근성 강화 등이 필요함.
 - OECD 사무국, 각국의 참석자들은 농업투자 정책일관성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며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식량자급률정책과 식량안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식량자급률 증가정책에는 위험요소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수반되는데 특히 자급률을 농산물수입으로 조절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듦.
 -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저개발국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증대하여 수출하고 생산이 모자라는 작물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제언함.
 -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농업투자 확대, 제도적인 개혁, 정부의 코디네이션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 더불어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긴급상황을 위한 식량비축과 다수확품종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야함.
 - 정책협의를 농업부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추진하되 기타 관련부처와도 정책협의를 추진해야 효과적일 수 있음. 범분야(cross-cutting)등을 포함하여 식량안보 강화측면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함.
 - ODA 프로젝트 중 소규모 사업은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성과도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위주로 추진하되 공유국의 일방적인 원조는 지양되어야 함. 특히, 데이터 및 정보 공유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되어야 함.
 - 개발에 대한 정책일관성(PCD)은 정치적인 연계가 있어야 효과적임. 사례 조사나 국가 단위의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수원국 중심의 정책협의를 통해 PCD가 추진되어야 바람직 함.
 - 결론적으로 OECD는 국내보조금정책으로 인한 무역왜곡정책을 지양하고, 수출입제한조치를 금지하여 무역을 통한 식량안보를 강화하자는 전략 일반적 제언임.

4.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ODA와 공여국의 역할-조정, 책임, 그리고 성과

- 발표자 : Earnan O'Cleirigh, OECD 개발협력국 선임정책분석가
 - 국가적 식량안보 목표 설정, 지원, 시행에 있어 공여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발제함. 저개발국에서 민간투자 촉진 문제를 제시하고 1992년과 비교하여 2007년에는 투자상황에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ODA 등으로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함.
- 토론주관자로 아프리카 토고 농업부 차관보 Mindi Lamboni가 맡았으며 UNECA(아프리카경제협력)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함.
 - 민간투자 활성화는 경제개발, 빈곤감소, 기아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함. 다만 민간투자와 공공투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음.
 - 토지개혁에 관한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에 대한 정보, 제도가 부족하며 아프리카의 정책지원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음.
 - 농업투자는 주로 소규모 생산자들에 의해 진행되며 개간 등 많은 과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나 ODA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임.
 - 그러나 토지개간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효율적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 중임.
- 토론 중, OECD 파트너십 모델이 신흥경제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발제에 대하여 회원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함
 - 민간투자는 투명해야 하며, 정보공유가 중요하고, 투자원칙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함. 또한 대상국가의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비용감축을 유도해야 함.
 - 식량안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과연 정책의 일관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고려해야 함.
- 세계은행의 다음과 같은 신용 및 금융 접근성 강화에 대한 발언 후 수혜국의 의견들이 제시됨
 - 세계은행 : 식량안보의 긴급성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농업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신용 및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함. 그 외 여성농업인 고려, 위험관리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유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이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야 함.

- 콜롬비아 : 신용정책과 생산부분을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을 검토해야 함. 특히 외국인투자와 지역투자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베트남 : 정부가 공공부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투자는 해야하지만 역량이 부족함. 민간 부문 투자는 고수익창출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민간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 경향 때문에 고수익 창출부분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EU :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며, 개발협력과 조화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민간투자의 조건을 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함. 아프리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논의하고자 하며 해외투자와의 연계를 통해 토지, 연구, 투자 이슈 등에 대해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독일 : 2013년 1월 베를린에서 농업투자에 초점을 둔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하므로 많이 참여해주기 바람.
- 일본 : 방글라데시에서의 민간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2배 증가시킨 경험을 소개하고 이러한 성공은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가능했음.
- 미국 : 민간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다국적 민간기업의 투자를 포함해 약 3조5천억 달러를 아프리카 및 기타지역에 투자하는 성과를 달성함.
- 프랑스 : 민간투자는 생산기반이 기본적으로 구축된 후 가치사슬 분야에 초점을 두고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환경문제를 고려한 투자가 추진되어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농민교육 및 계몽활동이 매우 중요함. 프랑스는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저개발국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둘 것임.
- 스위스 : 농업투자에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 포괄적인 투명한 투자의 활성화, 농민의 실제수요 파, 소규모 농가와 여성의 역할 및 권리 파악 등이 필요함. 농지문제를 국제문제에서 지역 문제로 전환할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농업투자의 수혜국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가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수혜국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직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생산성증대임. 이를 위한 농업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투자 촉진,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
- 그 외 국제기구 IFAD 참석자는 구소련 체제 전환국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투자를 잘 조정해야 하고 특히 R&D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사무국은 많은 논의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농업투자는 농업인들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야하고 투자초기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됨.
 -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위해 거버넌스, 제도, 시장규칙 등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접근성이 가장 중요함.
 - 투자에 대한 책임성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임.
 - 처한 현실이 매우 다양하여 투자모델을 정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거래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 향후 농업투자에 있어 기후변화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작물보호제, 저장, 유통 등 모든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가 필요함. 또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역시 중요한 요소임.

VII. 시사점

- 최근 농업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는 곡물가격 상승에 집중되어 있음.
 - 기후변화, 녹색성장, 바이오에너지 등의 논의도 궁극적으로는 곡물수급, 가격 전망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농가 경제의 변화, 지속가능한 농업,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이 각국의 주요 관심사임
-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내 당면현안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국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정책을 공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2007~2008 곡물가격 폭등 시 수출국들이 수입제한 등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으며 이로 인해 빈곤국가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금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웠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집중시킨다는데 의의가 있었음

-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ODA가 확대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커질 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혜국들의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빈곤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정책을 공조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으나 각국의 동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음.

□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 CoG)

I. 회의명 : 제159차 농업위원회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11.27~28일 10:00~18:00, OECD 본부 회의장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배종하 총장,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서정아 사무관, 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박사,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최정남 박사, 당 대표부 이안호 참사관

V. 핵심요지

- 새로운 농업정책방향에 대한 각국의 도전과제와 선택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미국, 유럽, 중국의 농업정책 방향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논의됨
 - 주요주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있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카자흐스탄의 농업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있었음
 - 카자흐스탄 차관(Marat Toliayev)과 농업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카자흐스탄의 농업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함.

- 석유 자원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은 소련연방에서 탈퇴하여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농업정책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음.
- 정책포럼 코너에서 '물과 농업' 주제로 논의함
- 기후변화, 물, 농업은 OECD에서 공통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이번 포럼에서는 주로 농업용수관리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되었음
- 회원국들은 과거 비효율적인 농업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포함한 새로운 생산기법을 도입하여 환경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법을 보급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VI. 토론내용

1.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

- 사무국은 발제를 위해 미국, 유럽, 중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국 대표가 발표함.
- (유럽)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바이오연료관련 연구 등에 4조5천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그러나 기술개발과 보급은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가 가장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직불제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선과 환경관련 공공재 제도 개선에도 노력중임.
- (미국) 농업법(Farm Bill) 발효가 지연되어 개별농산물법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낙농법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농업법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지고 있음. 바이오연료정책과 옥수수 수요의 상관관계와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고려중임. decoupled payment의 국민적 지지가 저하되고 있으며 연방농산물보험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미국은 감축대상보조(amber box) 내 보조금이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어 WTO 관련 보조금 제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202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과 관련하여 작물보험, 보호관리, 직불제 등이 주요 프로그램임. 직불제 관련하여 가격이 상승할 때 필요한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대한 지불, 가격이 낮을 때 지불해야 되는 예산 등과 관련한 비판이 있음.
- (중국) 정부가 쌀, 옥수수, 밀에 대한 필요량을 책정하고 공급측면의 식

량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고 국내생산으로 부족한 양은 국제시장에서 구매하고 있음. 생산 증대를 위한 토지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프라 구축 용수 확보 등에 정부 투자를 확대함. ① 1억2천만 ha를 개발하는 농업분야 투자 계획(농지, 물, 자연재해 등) ②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가공 및 유통 과정의 효율화 ③ 식품안전 체계 구축(중국소비자, 로컬푸드). 그러나 토지, 용수의 제약과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농업개발에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생산측면에서 비료 및 농약 등의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젊은 노동력의 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하고 데이터와 정보의 격차 또한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에 제약이 되고 있음. 농업은 중국 내 우선순위에 있는 산업이며 정치적, 경제적 주요사항임.

- 사무국은 3국의 농업정책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함
 - 정부의 지원수준이 높으면 경쟁을 약화시키고 기술개발의 속도를 늦추게 되므로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측정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용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문제이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
 - 중국에 대한 문제로는 자급률과 식량안보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농업정책의 기본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함. 이후 국내보조 감축, 식량안보 강화, 질병 감소, 글로벌 공조 연구 강화 등이 기본적인 기조로 추진되어야 함.
-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브라질 : 새로운 방향의 농업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학적 시각을 제안함. 농업정책에서 보조금 관련하여 수출에 대한 보조금은 없으며 농업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많음.
 - 포르투갈 : 가뭄, 냉해,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심각성이 높아짐.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의한 피해에 농민들의 적응 문제 또한 심각해짐. 새로운 작물에 대한 투자 및 투자규모 등을 결정해야함.
 - 캐나다 :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농식품산업정책 수립 계획 중임. 이해관계자, 가치사슬, 정보수집, 기술자, 정책입안자, 산업육성의 요인, 정책평가, outreach 프로그램 등이 핵심 이슈임.

- 네덜란드 : 녹색지표 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과학과 산업 경제와의 협력 및 공동연구 등이 필요함.
 - 호주 : 농업의 도전들을 요약함 - 농업정책의 재구성, 기술정책, 시장가치, 위험관리, 연구개발, 와인산업, 지속성, 식량안보, 산업화,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등이 핵심주제임.
 - 콜롬비아 :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면 식량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정보망 구축을 할 것인가'와 '농업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있음.
 - 아르헨티나 : 신기술개발, 연구개발이 농업생산성에 매우 중요함.
 - 스웨덴 : 시장중심으로 농업정책 재구성하였는데 시장가격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 한국 : 3가지 점을 정리하여 발언함. ①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개발에 투자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5% 투자를 증대함. R&D 평가 기획 기관 설립하여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소재연구, 첨단생명공학기술개발 등에 투자 ② 한국정부는 농업분야 위험관리를 위해 농산물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재해에 대한 평가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계획 중임. 반면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 민간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함 ③ 농업인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0% 수준이므로 제한된 직접 보조금이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 그 외 영국, 터키, 베트남 등이 농가소득, 위험관리, R&D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발언내용에 동의하며 자국의 도전과제들을 간단히 발표함.
- 사무국은 여러 나라의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고 식량안보라는 공통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그 가운데 OECD 회원국의 역할이 세계 농정방향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

2. 카자흐스탄의 농업정책 검토

- 카자흐스탄 차관(Marat Toliayev)과 농업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카자흐스탄의 농업정책을 소개하고 토론함.
-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개발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농업의 GDP 비중은 1990년 34%에서 2011년 5%로 하락함.
- 소련연방(USSR)에서 1991년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대농의 비중도 급감.

- 카자흐스탄의 PSE는 약 10%로 낮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25%까지 증가함. 카자흐스탄의 PSE는 2009-2011 평균 11%로 낮은 수준이며, 시장 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가 83%를 차지함.
 - 식량분야에서는 인프라시설 부족과 농촌도로도 취약요인이며 정보 부족, 시장 운영에서의 시간 손실이 장애요인이며, 낙농과 쇠고기는 거의 자가 소비됨.
- 사무국은 정책권고사항으로 1) 정책노력을 전략적 투자와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조명 2) 소규모 생산자들이 시장을 통합하고, 농가소득을 다양화, 개선하려는 노력 강화 3) 식량안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구를 통해 포괄적인 접근 4) 농업에서의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 개발 5) 공공기관의 농업에서의 역할 구체화, 6) 농업정책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안함.
- 카자흐스탄은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자국의 정책을 소개함.
- 축산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은 순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위해 질병관리, SPS 기준 준수, 가공 기술 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중 하나로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WTO 가입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추진 중임.
 - 생산자와 관련하여 금융지원 및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보호하고자 함.
- 회원국들의 질문과 카자흐스탄의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음.
- FAO : 농업정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책개혁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공유지의 사유화과정에서 생산자들에게 소유권이 전환되어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관련 정보 부족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2) 농업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초지 환경 악화, 토양 침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지는 무엇인가,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용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개수로 구축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음 3) 농산업 및 농산물 가공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 농산물 가공분야가 과거 10년 사이 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주스 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전반적인 가공 산업은 낙후되어 있음.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동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현황은 어떠한가?

- 베트남 : 농지소유권 변화에 관심이 많으며 소유권 변화는 농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는 아시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추진되며 베트남의 경우 농지소유권은 없음.

☞ 답변 : (농지소유권) 대부분의 농지를 임대하고 있음. 밀생산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임대가 활발하며 수많은 농가들은 농지소유를 원하지는 않고 장기 임대를 선호함. 농지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사회주의 시절 협동농장시스템에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농지가 산재되어 있어 새롭게 농장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음. 대규모 농장들은 점진적인 전환과정을 택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대규모 농업을 영위 하게 된 이유임

☞ (국가의 행위) 농업생산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 주요 농기업은 국가전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하고 80,000의 소규모 농가들은 다른 형태의 농업경영을 선호하지 않음. 주요자원은 물과 관련되어있는데 수자원은 카자흐스탄에서 중요한 문제임. 남부지역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s었고 작물, 목화 등의 경작에 물은 필수적임.

☞ (외국인 투자) 많은 유럽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였음. 터키 기업들도 투자하였음. 유럽에서의 농지부족은 카자스탄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음. 농지가격이 비쌌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며 카자흐는 농지세와 임대료를 더욱 올렸음.

☞ (그외 노력) 유럽의 파트너로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를 희망함. 경제발전과 동시에 유기농을 발전시켜왔는데 넓은 농지를 갖고 있으나 식량수입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가금사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 전환과정에서 우리는 훌륭한 방법을 찾으며 자원 관리와 관련해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했음. 낡은 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함.

☞ (사유화과정) 사유화과정에서 많은 충격이 있었음.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많은 농업생산자들이 파산에 이르렀으며 재구조화 과정, 농지개혁 등은 개발이라기 보다는 생존경쟁이었음. 애그리비즈니스, 농가공산업과 관련하여 밀가공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였음.

- 캐나다 : (정책평가)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농업정책은 국내농업을 보조

하는 기조로 추진되어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판단됨. 캐나다의 경험에 따르면 **시장중심의 농업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며 무역의 활성화는 국내 생산기반의 구축을 통해 이룰 수 있음. 또한 원예 산업은 전력 공급이 기초가 되어 냉장보관 등의 시설이 구축되어야만 활성화 될 수 있음. (교육 및 기술보급 체계) 구축은 특히 농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인프라 구축과 교육에 대한 정책수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캐나다는 또한 농업에 특화된 신용기관 설립을 통해 농산업의 활성화를 추천함.

☞ 답변 : 10~15년 전만해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화로 지역에 수확할 것을 지시했는데 전환 20년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님.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팔아야 하는가? 등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함. WTO의 권고사항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음. 물전기 공급, 기술보급 등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항이며 기업들에 시장에 적응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음. 농업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에 가까이 가 있으라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임. 한편 카자흐는 금융체계구축을 위해 국영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기술개발) 우리의 구조는 역피라미드 구조임. 기술보급 조직은 하부의 역피라미드 하부의 7개 뿐이며 연구조직들은 이론적으로 연구할 뿐 실용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있음. 농업인을 위한 연구조직의 개혁은 곧 착수할 예정임. 농업인들과 농기업,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최근 20회 이상의 미팅을 통해 정부정책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음. 작물생산 및 축산과 관련하여 지난 15년 이상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나 한계가 있음.

☞ (국제경제협력) 매우 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2010년 가입해서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 벨라루스 등과 같은 큰 시장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큰 고객임.

- 네덜란드 : (3장에 대한 평가) 무역, 가공 산업밀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톤당 60달러로 무역의 거래비용이 매우 높음. 미국은 톤당 17달러에 불과함.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답변) 낙농분야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함. 우유의 품질에 따라 농가가 차별화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우유품질제고 노력이 필요함. 더불어 낙농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입재 산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금융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임. 카자흐스탄 낙농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며 육우산업 역시 낙농과 유사하게 매우 작은 규모로 경영되고 있음.

☞ (육류산업 강화) 최근 두가지 방향의 정책 즉 규모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만 충당이 부족하므로 외국에서 적극 도입함.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에서 말을 매년 15,000마리 정도 수입하고 있음.

☞ (기타) 과도한 생산비용, 시장의 비효율성은 70년 이상의 소비에트 경험에 기인하고 있음.

- 사무국은 농업분야의 도전정신과 정책은 훌륭했다고 평가되나 인적자원의 부족 등이 한계였다고 설명함. 농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부문임.

3. 정책포럼 : 물과 농업

- 사무국이 준비한 내용으로 발표함.
 - 글로벌화에 따라 용수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자연자원 활용,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용수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큼.
 - 토지 및 용수 활용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관개수로의 건설은 재정을 포함한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을 것이며, 재이용 용수 활용에 대한 잠재력은 존재하지만 비용이 너무 크고 용수 오염을 방지 비용도 매우 큼, 이 비용은 taxpayers에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OECD에서는 농민과 다른 용수 사용자에게 용수가치를 고려하여 오염자의 오염비용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켜 시그널이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과, 보다 효율적인 농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용수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농업부문의 용수관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적 제도개선, 용수관리 보강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거버넌스 강화, 식량 및 용수 안보와 관련된 장기적 관심사가 부각될 수 있도록 복원력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이에 회원국들은 과거 비효율적인 농업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포함한 새로운 생산기법을 도입하여 환경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법을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특히 질소비료 및 농약사용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법 및 제도적인 개선이 추진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더

불어 물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용수와 관련된 법 및 제도개선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 더불어 관개수로의 구축은 농업생산에 상당히 중요함. 현재 미국의 경우 중서부의 가뭄으로 인해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는 1988년 경험했던 가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옥수수 생산과 관련하여 단수가 1988년 감소했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파악되고 있어 관개수로 및 용수관리 기술의 향상이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이기도 함.
- 또한 용수부족이 상존하는 지역에는 효율적인 물 사용제도를 도입하기보다 물 사용료의 효율적 부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일 수 있음.
- 대부분의 회원국은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적은양의 용수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

4. 기타 사항

(1) G20 활동 브리핑

- 사무국은 G20에서 생산성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술전수, 교육 및 훈련,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를 지원할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여 검토하고자 함. 검토를 토대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하고자 함.
-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러시아 :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지지함. 러시아는 아시아협약체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식량안보에 관해서는 FA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생산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사무국장: 현재 추진 중인 활동은 AMIS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 중임. 미국의 기후로 인한 생산 저하로 인해 AMIS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FAO, OECD, WB가 협조하여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AMIS 보완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자함.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에 초점을 두고 보완하겠음. G20에서 요청하는 것은 조만간 보고할 예정이며,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개발은 올해 여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사용하여 정책 제언을 토한 실행계획을 추천하고자 함.

- 미국: G20관련 활동에 대해 지지하며, 러시아의 가입을 통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사무국은 G20에 대한 OECD의 지원 분야로 용수관련 과제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 Biodiversity, 용수 활용에 대해 초점을 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작업반 활동 보고

- 농정시장작업반(APM),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 공동연구프로그램(CRP) 의장들이 1년간의 활동보고와 최근 회의 결과를 정리, 발표함.
- 공동연구프로그램 의장은 다음과 같이 활동보고함.
 - CRP는 현재 2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10 conference 개최, fellowship 지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인 근거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사무국에서는 공동연구작업반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이 부족하므로 많은 분야에서의 정보공유가 가능한 작업반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하며, 러시아의 활동도 기대하고 있음.
 - code and schemes: 4분야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음. 활동 내역은 2번의 미팅 개최함. 2012년에는 필란드 주관으로 annual meeting을 개최하여 체계적인 관리 가능, 2013년(1월)에는 프랑스가 주관하여 개최할 예정. 올해도 36개 회원국으로 새로운 회원국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 2013년은 세네갈이 seeds & schemes에 참여 예정, 중국이 seeds & s에 참여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함.

(3) 러시아 OECD 가입 관련 사항(비밀회의로 진행)

- 회원국들만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의 농업정책을 소개하고 그에 따라 회원국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러시아가 퇴장한 가운데 가입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음.
- 독일 : 러시아의 가입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농업과 관련하여 러시아

의 농업정책이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임. 특히 SPS와 관련한 이슈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프랑스 : 기본적으로 독일과 유사한 입장을 표명함.
- 미국 :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WTO 가입을 계기로 투명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SPS 정책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준하고 있는지는 불명확함. 또한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은 식량 안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 더불어 PCD와 관련하여 OECD 회원국과의 정책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에스토니아 : 국제사회의 기준을 대하는 러시아의 자세는 문제가 있음. 하지만 무역과 관련된 이슈는 무역관련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고 농업과 관련된 러시아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EU : ECD 가입의 문제가 무역과 관련된 제도에 집중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농업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정책을 분석할 역량이 회원국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함.
- 사무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러시아 측에 전달하고자하며, 특히 무역과 관련된 제도의 명확한 파악은 WTO 등의 무역관련 위원회의 역할이지만 러시아에게 명확한 자료를 요청하고, EU의 제안사항인 경제적, 정책적 분석 추진은 농업위원회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됨.
- 사무국에서는 수출제한과 관련된 명확한 러시아의 입장 표명을 요청할 것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이 러시아 OECD 가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2007년과 비교하여 러시아의 가입의지가 적극적임.

(4) 수입공조국 모임

- 노르웨이 주관으로 수입국 공조회의가 11월 28일(수) 점심시간에 있었고 한국대표단 3명이 참석함.
- 일본은 식량안보와 관련된 차년도 과제를 통해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적 사례 조사를 포함하고자 하며, 특히 인도네시아를 사례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하고자 함. 또한 이를 위해 일본은 기부금(voluntary)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공조국의 지지를 요청함. 이에 따라 참석한 공조국들은 지난번 농업위원회 안전으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대할 여지가 없으며, 사례 조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함.
- 러시아의 OECD가입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VII. 시사점

-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됨.
 - 미국, EU, 중국의 정책방향들이 소개되었는데 미국과 EU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책 방향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특별히 주목을 끌만한 사항은 없었음.
 - 최근 가격상승으로 생산농가들은 소득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기회에 보호를 줄이고 시장원리에 가까운 방향으로 농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상당 수 회원국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 미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R&D 예산의 확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확대, 도농간 소득 격차의 확대 등 떨어지고 있는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불제 확대 등을 소개함.
- 카자흐스탄 농정리뷰에서는 소련연방에서 독립하면서 혼란을 겪었으나 광대한 국토,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임.
 -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제도의 틀은 바꾸었으나 아직도 구체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음.
 - 농지의 대부분이 국가 소유이며 밀 생산은 최근 크게 증가하여 수출국이 됨. 그러나 수입하는 품목이 많고 경제는 러시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음. 현재 WTO 가입을 준비 중임.
- 러시아의 OECD 가입 관련 관찰
 - 러시아 농정을 소개하고 회원국들과 질문 답변식으로 진행되었음. 회원국들은 러시아 가입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며 아직도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존재하며 특히 SPS조치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불만을 표시함.
 - 따라서 타 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을 러시아 OECD 가입문제에 있어, 농업위원회는 유보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